아내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./사진-뉴스160대 남편이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.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.A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싸움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. 그는 '아내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'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.사고를 당한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,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.